

<b>주가</b>	<b>환율</b>	<b>금리</b>
-10.62	-1.70	+0.05
1,304.31 (코스피지수)	957.80원 (원/달러)	4.80%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55.53	(+3.21)
대우(9일)	11,076.18	(-97.41)
나스닥(9일)	2,060.28	(-0.57)
닛케이	15,630.91	(-25.68)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4.90엔	(-0.44)
유로 달러 환율	1.2875달러	(+0.76)
3년만기 회사채	5.12%	(+0.05)
콜금리	4.49%	(+0.25)

### 10원짜리 새주화 올 연말 발행

크기가 크게 줄어들고 소재도 황동에서 구리를 섞은 알루미늄으로 바뀐 새 10원 동전을 올 연말 발행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소재와 크기를 바꾼 새 10원 동전을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 ■ 10원동전 디자인·재질 개요



새 동전의 규격은 지름이 18.0mm로 현재(22.86mm)보다 4.86mm 작고 무게는 1.2g으로 현재(4.06g)보다 훨씬 가벼워진다. 소재도 황동(구리 65%, 아연 35%)에서 구리를 섞은 알루미늄으로 변경된다.

알루미늄 겉면에 얇은 구리판을 덧씌운 소재는 세계적으로 처음 사용되는 재질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새 10원 주화의 디자인 소재와 문자·숫자 배열 체계는 현행 주화와 동일하지만 문자 및 숫자의 글자체는 새 은행권에 적용된 글자체로 조정된다. 색상은 현재의 황금색에서 구리색으로 변경된다.

새 동전이 발행되더라도 현재의 10원 동전은 계속 사용되며 한은은 환수되는 현용 10원 동전 가운데 사용이 가능한 것은 계속 유통시킬 계획이다.

구리가격의 급등으로 현재의 10원 동전 소재 가치는 올해 7월 말 현재 약 24원에 달하지만 새 동전의 소재가치는 역변가 격을 크게 밀도는 5-6원 정도가 된다고 한은은 밝혔다. 연합뉴스

### 광주 신세계 개점 11년만에 새단장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개점 11년 만에 새를 개업한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10일 "지난 4월 시작한 백화점 전 층에 대한 리뉴얼 공사가 끝남에 따라 11일 그랜드 오픈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리뉴얼 공사로 인한 백화점의 두드러진 변화는 입점해 있는 이마트 광주점과 중복되는 식품·생활 부문을 축소하고 가전 매장을 이마트로 옮기는 한편, 4개 층이던 의류 매장을 6개층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3~5층에 피혁과 여성전문매장, 6층에 영웨브와 스포츠 의류매장, 7층에 남성류매장, 8층에 유아·아동·골프의류 매장이 각각 들어서고, 지하 1층에 전문식당과, 식품·생활 복합 전문관이 탄생한다.

또한 여성류 브랜드 15개, 스포츠 6개, 남성셔츠 6개, 화장품 6개 등 총 60여개의 신규 브랜드가 들어서 고품격 패션 브랜드 중심으로 매장을 구성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 새 얼굴 /

### “안전시설·도로 여건 개선 할 것”

#### 박병철 도로공사 호남본부장



“재난에 강한 고속도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박병철(54)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장의 취임 소감이다.

박 본부장은 “지난해 겨울 광주~정읍간 고속도로에 20여일 동안 눈이 내려 이곳을 이용했던 고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면서 “제설차량과 자재 등을 확충해 일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과속된 도로를 새로 정비하고 안전시설을 늘리는 등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도 출신인 박 본부장은 조대부고와 조선대 토목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78년 도로공사에 입사, 경기사업소 공사부장, 본사 도로처장·구조물처장 등 요직을 거쳤다. 가족으로는 부인 신금희(48)씨와 2남이 있으며, 취미는 등산.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콜금리 0.25%p 인상 경제 파급 효과는?

#### 기업 설비·투자 축소 수출 경쟁력 ‘약화’

잇따른 금리인상이 수출기업의 경쟁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수출기업 1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0일 발표된 ‘금리인상 논의에 대한 무역업계 설문’ 조사 결과 금리가 인상(0.5%p)될 경우, 수출업체의 84.2%가 수출경쟁력 약화를 예상했다. ‘큰 타격 예상’과 ‘타격 예상’ 응답이 각각 53.4%, 30.8%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은행이 10일 콜금리를 0.25%p 인상하기 전, 콜금리가 4.25%일 때 실시된 것이다.

금리인상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출기업의 50.4%는 ‘기존 설비투자계획 축소’를 응답했으며 ‘기존 계획대로 이행’, ‘별 영향 없음’의 응답비율은 각각 32.3%, 17.3%였다.

금리인상이 국내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출업체의 88.7%가 국내경기 위축을 예상했는데, ‘크게 위축’ 또는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27.8%, 60.9%였다.

현재의 금리 수준(4.25%)에 대해 대부분(74.4%)의 응답기업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으며 ‘적정 수준’,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25.6%에 그쳤다.

수출기업들의 60.9%와 53.4%는 하반기 국내경기 및 수출경기에 대해 ‘현재보다 크게 악화’ 또는 ‘악화될 것’이라고 답해 어렵게 전망했다.

#### 담보대출 이자 부담 부동산 시장 ‘위축’

콜금리 인상은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부동산 주변을 맴돌던 자금을 은행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대출금리를 올려 은행돈으로 집을 사려던 수요를 위축시킬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양도소득세(CD) 금리에 연동되는 구조여서 CD금리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며 CD금리는 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현재 CD 금리(3개월물 기준)는 4.64%로 은행들은 여기에다 1~2%의 금리를 가산해 주택담보대출금리로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도 CD금리 인상폭은 콜금리 인상폭과 비슷한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오를 경우 1억원을 대출받았다면 연 25만원, 2억원 대출이라면 연 50만원의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와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6월 이후 약세를 보여 온 부동산시장은 이달 말부터는 다시 꿈틀거릴 것으로 전망됐으나 당분간은 상승세 전환이 어려울 전망이다.

아파트 매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던 사람들은 매수 시기를 더 늦출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투자목적에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처분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 은행 금리 속속 인상 예금·대출자 ‘희비’

우리은행은 오는 14일부터 예금금리를 연 0.1%~0.2% 포인트 범위 내에서 인상하기로 했으며 기업은행도 14일부터 1년 이하 정기예금에 대해 0.2% 내외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환은행은 연 0.1%~0.3% 포인트 범위 내에서 예금금리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신한은행은 예금금리 인상 여부와 점장 전월 금리 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금리인상기에는 ‘예금은 변동금리로 짧게, 대출은 고정금리로 길게’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성태 한은총재가 “기존 통화정책 방향을 재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인상 기조가 마무리됐음을 시사한 만큼 ‘예금은 고정금리로 길게, 대출은 변동금리로 짧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리인상기에 단기 회전성 예금이 유리하지만 금리인상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1년만기 정기예금 상품이 낫다는 것이다.

반면 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다. 변동금리형 대출상품의 금리가 고정형 금리 상품에 비해 1%포인트 정도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콜금리가 3차례 이상 올라 고정금리 상품이 유리하지만 이같은 급격한 인상은 어렵다는 것이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0일 여의도 63빌딩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뮤지컬 'I'm 신데렐라' 공연 배우들과 함께 열음으로 만든 대형 구두를 만져보고 있다. 가족 뮤지컬 'I'm 신데렐라'는 오는 27일 까지 63빌딩 별관에서 공연된다. /연합뉴스

###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와이브로’ 진화 어떻게 될까

이동통신 기술 이렇게 발전한다			
<b>1세대</b> 음성 통화	<b>2세대</b> 문자메시지 등 데이터 통신	<b>3세대</b>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전송	<b>4세대</b> 고화질 동영상 및 3차원 입체영상 고속 전송
전송속도 9.6~14.4kbps	14.4~64kbps	144k~2.4Mbps	저속이동시 1Gbps, 고속이동시 100Mbps (3세대보다 50배 이상 빠름)
도입시기 1988~96년	1996년~현재	2002년12월~현재	2010년 예상
방식 아날로그 이동통신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CDMA2000, WCDMA	와이브로 등
단말기 투박하고 무거움	촉박화면의 플립형	컬러화면 카메라와 MP3 기능이 통합	고화질 화상통화 및 원격 건강진단 기능도 추가

### DMB와 결합... 쌍방향 방송시대 연다

미국 이동통신사인 스프린트네트웍스가 삼성전자가 개발한 와이브로(Wibro·휴대인터넷)를 4세대 이동통신기술로 채택하면서 향후 와이브로의 발전·진화, 서비스 정류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와이브로의 핵심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에서 세계시장의 51%를 차지할 만큼 미국, 일본, 유럽 등에 비해 다양한 원천기술을 갖고 있어 향후 4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절대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 진화 시작=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 와이브로 표준화 기구(PG302)는 삼성전자가 K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주축으로 참여한 가운데 오는 9월까지 'Wibro Evolution' (와이브로 진화) 표준화를 위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TTA PG302는 특히 내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전파통신

#### 방송도중 인터넷 쇼핑

#### 콘텐츠 다시보기 서비스

신화의(WRC-2007)에서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에 앞서 와이브로 진화(Evolution)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 글로벌 4G 이동통신 표준화에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TTA PG302는 이를 위해 현재 와이브로 시스템 및 단말기간 호환을 위해 2·3세대 이동통신, 무선랜,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와의 연동 표준을 만들고 있으며 가입인증 스마트카드(PISIM 또는 UIIC) 표준도 제정할 예정이다.

◇향후 서비스 유형은= 우선 대표적인 연동 서비스는 와이브로와 지상파DMB의 결합. 이 연동서비스는 PDA형 와이브로 단말기에 USB형 지상파DMB 수신기를 결합해 방송을

시청하고 양방향 데이터방송은 와이브로망을 리턴패스로 활용하는 형태이다. 방송망으로 지상파DMB 데이터방송을 수신하고 와이브로망으로 회신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KBS와 KT는 이미 지난 5월 'DMB-와이브로 연동서비스 개편식'을 갖고 시범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으며 양사는 곧 지상파DMB와 와이브로 수신 일체형 단말기를 통해 연동서비스를 정식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KT는 KBS의 방송콘텐츠를 와이브로로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방송프로그램 시청 도중 와이브로로 이동해 인터넷쇼핑을 하거나 추가 정보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와이브로-DMB 결합서비스의 등장은 방송통신분야 서비스 간 결합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CMA를 활용하라

(어음관리계좌)

급여이체만 하루만 맡겨도 4%대 수익률

#### ③ 월금통장 바꾸기

월금통장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이용하기 편한 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인기였다면 지금은 수익률까지 고려해 CMA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CMA란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로 우리말로 풀이하면 어음관리계좌이다. CMA는 종합금 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해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예탁금에 제한이 없고 수시 입출금이 허용되면서도 실제금리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일반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연 0.1% 정도의 금리를 제공하지만 CMA의 경우 3.5%~4.0% 정도의 수익률을 실적배당하고 있다. 1년에 500만 원 정도를 예치한다면 은행의 요구불예금은 이자가 5천원에 불과하지만 CMA는 17만~20만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CMA 계좌를 활용하기 까리는 것은 수익률이 조금 더 낮다고는 하지만 찾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을 수는 있는지, 원금을 못 찾

을 수도 있는지와 같은 의문점 때문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비교해 편의성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고, 원칙적으로 원금이 손해날 가능성도 없다.

CMA의 경우 은행과 연동되는 연계계좌를 만들 수 있어 해당 은행의 ATM기를 이용할 수 있고 자동이체, 온라인뱅킹, 공과금 자동납부, 카드대금 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종합사 CMA의 경우 기본적인 예금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원금이 보장된다. 증권사 CMA는 RP(환대조전부채권), MMF(Money Market Fund) 등에 투자하는 채권, 투자신탁상품으로 원칙적으로 원금보장이 안되지만 국공채와 같은 우량채권이나 단기성 자산을 통해 운용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의 우려는 거의 없다.

따라서 월금통장이나 6개월 미만 단기성 자산은 은행의 요구불예금에 묶어둘게 아니라 CMA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단기성 자금을 한하는 의 경우이다. CMA보다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등이 더 좋다. <TNV 파이낸셜클럽팀장>

### “한국김치 입소문 마케팅” 日 황족·연예인에 선물

#### 농산물공사 홍보효과 특목

한국 정부기관이 일본 황족과 정치인, 학자, 연예인, 언론인 등 유명인들에게 ‘한국 김치’를 매주 한차례씩 제공, 특목한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도쿄지사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일본 오피니언 리더 김치 구전(口碑) 마케팅’을 시작, 호평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한국 김치를 무료로 제공받은 일본 유명인은 최초 13명에서 41명으로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